

# 한동훈·이재명 잠룡 총출동... 여야 전당대회 판 커진다

국힘 한동훈 출마 '어대한' 주목...민주 이재명 연임 도전 확실  
여야 대선 주자들 전대 성적표, 대권 향방에 큰 영향 미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대선 주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야 전당대회가 '마리보'는 대선'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번 주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당내 정치력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권주자 1위 자리를 지키며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이들의 여야 전당대회 성적표에 따라 대권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당의 전당대회는 다자간 무한경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나경원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앞서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고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며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팬덤'을 가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 패배로 당을 떠났던 그가 두 달여만에 다시 당권에 도전하면서 정쟁한 후보들과의 다자 대결에서 승리 여부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자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려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재정립도 강조했다.

그는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성했다.

당초 '한동훈 대세론'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다자 대결로 재편되긴 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전히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가 커지는 분석이다.

다만, 당원투표의 특성과 결선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헌·당규' 개정을 바탕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연임 결심을 굳혔지만, 급박한 원내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당내 당권 주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는 전제는 남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의 당권 출마와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전당대회는 명실상부한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됐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중 한 전 위원장의 독주가 지속되고,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대항마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총선을 총지휘 했던 한 전 위원장과 이 대표는 이번 경선대회에서도 또 한 번 자신의 정치력을 두고 대권 주자간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여름보다 뜨거운 야구 열기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더블헤더 1차전 경기를 찾은 많은 관중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고 쌀 500만톤 매입, 쌀값 안정시킬까 >2면  
파멸 부르는 데이트 폭력-악마가 된 남친 >6면  
호남의 누정·원림 - 장성 청계정 >22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전국 침수위험지역 1654곳 '지도' 제작한다

행안부, 긴급문자 자동발송...지하차도 차단시설 431곳으로 확대

지난해 14명이 사망한 오송 공평2지하차도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침수 위험지역 1600여곳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가 연내 제작된다.

침수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먼저 중점 관리지역 100곳에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했고, 저화질 폐쇄회로(CC)TV 6천106대의 교체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 사고 예방대책도 보완했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했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40개로 늘렸다.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하고,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DMAT) 대기 수당을 신설해 의료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행안부는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

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련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침수 대비 통계기준 신설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15cm 이상 침수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 등의 상황에서는 관리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마련 대상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늘리고, 신속하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침수 상황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하반기에는 침수 위험지역 1천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고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 확대, 사방지 해제요건 완화(5년→1년), 사망시설 설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현역병(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보장기간

2024. 1. 20. ~ 2025. 1. 19. (1년)  
※ 청구기한 3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장!

### 보험금 지급방식

상해발생 ○ 보험사 청구 ○  
보상여부 검토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보험금 상담 및 청구

•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FAX)  
☎ 070-4758-8556

### 문의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 062)613-2722



광주광역시  
GWANGJU CITY